

‘트바로티’ 김호중의 첫 TV 단독 쇼



9월 9일(금) 밤 8시 10분 방송

SBS 추석특집 쇼 <김호중의 한가위 판타지아>가 8월 30일(화), 경기도 고양체육관의 3천여 객석을 보랏빛으로 물들인 채 성황리에 진행됐다. 총 4개 파트로 구성된 <김호중의 한가위 판타지아>는 클래식부터 트로트까지, 다양한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김호중만의 독보적인 무대들로 다채롭게 꾸며졌다.

‘Nella Fantasia’ (넬라 판타지아)로 화려하게 오프닝을 연 김호중은 “여러분 덕분에 단독 쇼를 하게 됐다. 오늘 날씨가 좋지 않아 공연 직전까지 걱정했는데 첫 곡 전해드리고 나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 그 걱정이 사라졌다”며 미소 지었다.

<김호중의 한가위 판타지아>는 그야말로 명절 종합선물세트 같은 무대들로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빛이 나는 사람’, ‘약속’ 등의 히트곡과 자신의 인생 이야기로 가슴을 뭉클하게 하기도 했다. 자신의 이름을 알렸던 SBS <놀라운 대회! 스타킹>에서 선보인 ‘Nessun dorma’ (네순 도르마)를 40명의 오케스트라와 함께 웅장한 무대로 꾸몄고, 대중 앞에서 트로트 가수로 처음 불렀던 진성의 ‘태클을 걸지 마’ 등 의미 있는 무대들을 선보였다.

이밖에 가수 최백호와 송가인이 깜짝 게스트로 출격해 오직 <한가위 판타지아>에서만 볼 수 있는 듀엣 무대로 큰 박수를 받았다. 김호중이 롤모델로 꼽은 최백호의 등장에 객석에서는 함성이 터져 나왔고, 김호중은 최백호와 함께 ‘노래해요’ 듀엣 무대를 선보였다. 김호중은 “노래하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는 다짐을 선생님 덕분에 했다”고 존경을 표했고 최백호는 “목소리만 듣고 좋은 가수가 나왔다는 생각을 했다. 자주 보자”고 화답했다.

처음으로 무대에 함께 있다는 송가인에 대해 김호중은 “국악과 성악이 함께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연락했는데 10초 만에 OK 답장이 왔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고, ‘한오백년’ 듀엣 무대로 또 하나의 ‘한가위 레전드’ 무대를 탄생시켰다.

팬들과 소통하는 무대들도 눈길을 끌었다. 앞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팬들의 신청곡을 받은 김호중은 ‘아리스 노래방’을 열어 김태우의 ‘사랑비’, 박학기의 ‘아름다운 세상’, 진시몬 ‘보약 같은 사람’ 등을 직접 불러주었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스페셜 스테이지로 꾸며진 ‘김호중의 판듀’였다. SBS 히트 음악 예능 <판타스틱 듀오>를 모티브로 사전에 김호중의 판듀를 모집했고, 이 중 두 사람이 뽑혀 김호중과 함께 ‘빛이 나는 사람’을 불렀다. 김호중은 “저라는 가수를 알게 돼서 하루가 행복해졌다는 댓글을 잇을 수 없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무대 직후, 예고에 없던 팬들의 VCR이 공개됐고 객석은 어느덧 하나가 되어 김호중에게 ‘떼창’을 선사했다. 김호중은 “이건 예상치 못했다”며 눈시울을 붉혔고 “열심히 서로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저는 아무 신경 안 쓰고 (여러분을 믿고) 노래만 하겠다”고 화답했다.

앵콜 무대 ‘고맙소’를 끝으로 본 공연의 막을 내린 <김호중의 한가위 판타지아>는 9월 9일(금) 밤 8시 10분에 방송된다.





최고의 라인업으로 돌아왔다

연예계 최고 골퍼 12인, 6팀으로 나뉘어 격돌



대한민국 대표 골프 예능 <편먹고 공치리 4>(연출: 윤종호)가 사상 최고의 라인업으로 돌아왔다. <편먹고 공치리>는 그간 '연예계 골프 고수들과의 대결'부터, '내부의 적'과 '랜덤박스' 같은 신선한 콘셉트로 재미를 선사해 왔다. 돌아온 시즌 4에서는 2명씩 편먹은 최강 6팀, 12인의 자존심을 건 정면대결이 펼쳐진다.

8월 31일(수) 첫 방송에서 화려한 라인업이 공개됐다. 먼저 <편먹고 공치리>의 터줏대감, 이경규와 이승엽이 대결 상대로 만난다. 시즌 1~3를 통해 특유의 호흡을 자랑했던 두 사람은 서로를 우승후보로 꼽으며 긴장감을 보였다. 이들과 한 편을 이룬 참가자는 tvN <스타 골프 빅리그> 초대 우승자 이정진(이경규 팀)과 프로라는 수식어도 아깝지 않은 배우 주상욱(이승엽 팀)이다.

이들과 함께 대결을 펼치는 참가자의 면면 또한 화려하다. 자타 공인 우승 후보 임창정×이종혁 팀을 필두로 탁재훈 ×

김준호 팀과 김종민 × 양세찬 팀 역시 강력한 우승 후보다. 더불어 연예계 차세대 영 골퍼로 급부상 중인 그룹 씨엔블루의 이정신과 강민혁이 합류했다.

최종 상금 3천5백만 원을 걸고 펼치는 치열한 토너먼트 대회를 앞두고 조 편성 과정부터 후끈했다. 대결 상대가 결정된 참가자들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대회의 분위기에 압도됐다.

한편, 전반적인 경기의 해설과 중계는 데뷔 35년 차 MC 박미선과 프로 골퍼 유현주가 맡았다. 박미선은 지난 1년간 국내외 골프 대회를 모두 섭렵하며 쌓아온 지식과 골프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진지하게 중계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해박한 골프 지식은 물론 막힘없는 입담까지 겸비한 유현주 프로와의 호흡 역시 재미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연예계 최고의 골퍼 12명이 펼치는 치열한 접전 <편먹고 공치리: 진검승부>는 매주 수요일 밤 10시 40분에 방송된다.



“코로나를 글로벌 취재 기회로 삼다”

- 보도본부 보도국 정치부 국제팀 김수형 기자

김수형 기자가 지난 4월 7일 보건의 날에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미국은 물론 남아공의 보건, 의료 전문가를 직접 인터뷰해 전 세계 코로나 팬데믹 동향과 대응 방안을 심층 보도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한 공이다. 워싱턴 특파원을 마치고 지난 7월 귀국한 김수형 기자를 만나봤다.

워싱턴 특파원인데 세계 여러 나라 주요 인물들과 인터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했다.

뉴스를 취재하다 보면 그 경계를 딱 구분 짓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은 전 세계적인 위기다. 오미크론 변이는 미국에서 경고음이 막 울릴 때, 남아공에서는 이미 문제가 한참 불거진 상황이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아프리카 국가의 얘기는 외신 보도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직접 취재도 가능해졌다. 화상 회의와 인터뷰에 전 세계 주요 인사들이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오미크론을 처음 신고한 안젤리크 쿠체 박사와 그 정체를 규명해 네이처 10대 과학자로 선정된 톨리오 데 올리베이라 박사의 인터뷰도 그들이 화상 인터뷰 제안을 받아들여면서 성사됐다. 이런 경험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는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까지 모두 10명의 주요 인사를 화상 인터뷰해 전쟁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보여줄 수 있었다. 복싱 세계 챔피언 출신 비탈리 클리츠크 키우 시장, 세르게이 오를로프 마리우폴 부시장은 폭탄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인터뷰에 응해줬다. 코로나 때문에 취재 환경이 많이 바뀌었고, 해외 인사들에게 접근하는 진입 장벽도 낮아졌다. 사실 미국 등 서구 매체들은 이미 그렇게 취재하고 있었고, 그런 변화를 워싱턴 현장에서 느끼고 저 역시 시도하면서 기억에 남는 보도를 할 수 있었다.

누구누구를 인터뷰했나?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뷰는?

레거시 미디어가 살아남는 방법은 최대한 많은 현장과 인물을 우리의 관점과 시각을 담아 취재 보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뉴스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그렇게 해야 시청자들이 우리 뉴스

를 볼 이유가 생긴다. <오징어 게임>이 유행할 때는 무작정 딱지를 접어서 백악관 앞으로 나가 사람들과 딱지를 치면서 그 인기를 취재했다. 하버드 법대 램지어 교수의 위안부 피해자 왜곡 논문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관련 인물들을 하나하나 찾아내 인터뷰를 통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당시 연판장을 주도했던 교수들이 미국 각지에 흩어져 있었는데, 주요 교수 3명을 화상으로 동시 인터뷰했다.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도 어렵게 인터뷰해서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취재하기도 했다.

가장 어려웠고 기억에 남는 인터뷰는 앤서니 파우치 백악관 수석 의료 보좌관이었던 것 같다.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일 때 미국에서 파우치 박사의 영향력은 대통령을 능가할 정도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런 파우치 박사를 질투하고 미워했다. 그를 팬데믹 초기부터 인터뷰하고 싶었는데,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다가 2년이 지나서 인터뷰할 수 있었다. 쉽게 포기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다.

가장 반향이 컸던 인터뷰는 어떤 것이었나?

통 프리덴 전 CDC 국장과의 인터뷰는 전혀 의도치 않았는데 한국에 큰 영향을 미쳤다. 폴리토코 기고문을 보다가 그가 여러 국가를 언급하면서 한국도 팬데믹 종결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써놔서 궁금해서 연락했는데, 인터뷰를 하다 보니 한국이 백신 허브 국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신 동시 생산을 위해 가장 기술력이 좋은 우리나라를 허브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청와대에서 이 주장을 받아서 백신 허브 국가 추진을 한미 정상 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로 올리기도 했다. 당시 기사를 숨 가쁘게 쏟아냈는데, 모더나의 스테판 방셀 CEO를 한미 정상회담 행사가 끝나자마자 따로 인터뷰할 수 있었다. 방셀 CEO는 회담 당일까지도 워싱턴에 울지 확정이 안 돼서 가슴을 졸이게 만들었는데, 취재가 잘 마무리되면서 모더나의 구체적인 백신 생산 계획을 처음으로 취재할 수 있었다. 당시 일련의 보도가 기반이 돼서 보건의 날에 총리 표창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인터뷰가 성사되기까지 어려웠던 적도 많았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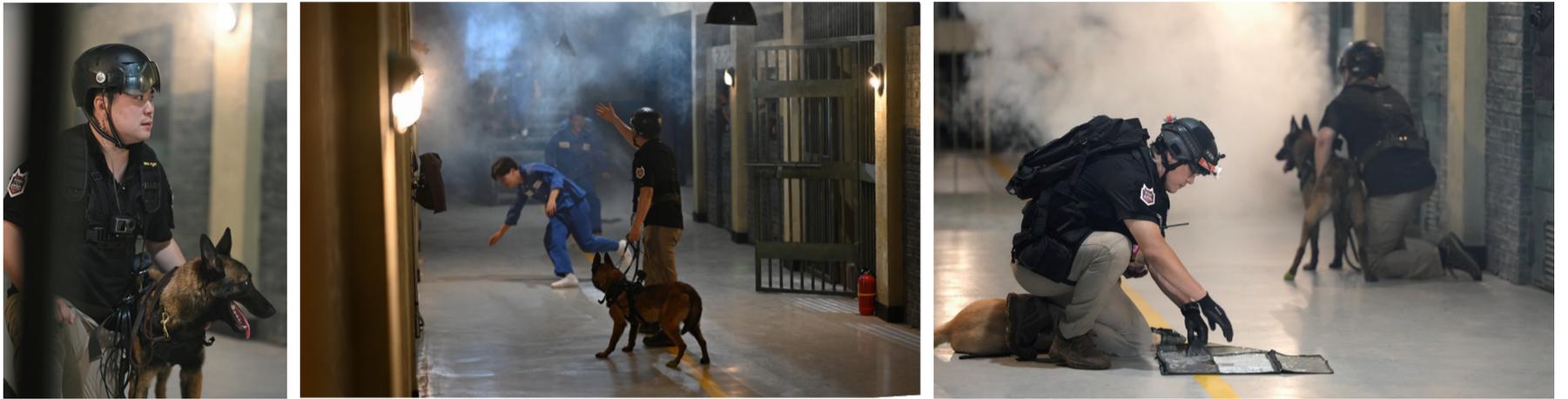
쉬운 경우는 거의 없다. 워낙 바쁜 사람들인데다가 연락조차 닿기 어렵다. 탈레반 대변인 수하일 샤힌 인터뷰는 뜻밖에 <SBS 인기가요> 덕을 봤다. 카불에서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들어오는 피란민 선발대를 취재했는데, 그들을 마중 나온 아프간 사람들이 SBS 마이크를 보고 몰려들었다. 처음에는 호주 방송사 SBS와 착각하나 싶었는데, “<인기가요>를 방송하는 한국 방송사 SBS 아니냐”고 말을 건네는 것이었다. 12시간 넘게 피란민들을 기다리면서 이들과 친해졌는데, 이들의 도움으로 수하일 샤힌과 접촉하는 방법을 알 수 있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다. 예능국 동료들에게도 감사드린다.

지금도 활발한 인터뷰를 이어가고 있는데?

지난해 말부터 '김수형의 워싱턴 인사이트'라는 제목으로 비디오머그용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해왔다. 주요 국제 이슈에 대해 한국에서 보기 어려운 취재원을 직접 인터뷰해 보도하는 내용이라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었다. 돌아와서도 '김수형의 글로벌 인사이트'로 이름을 바꿔서 진행하고 있다. 서울에서도 화상 취재는 큰 제약이 없다. 타이완 위기 상황에서 민진당 국회의원과 미 하원 외교위원장을 단독 인터뷰해 <8 뉴스>와 '글로벌 인사이트'로 제작해 보도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플랫폼에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보려고 한다. 기회가 닿는다면 취재 경험을 후배들과 나누면서 좋은 뉴스를 만들어봤으면 한다.



2022 <TV 동물농장> 특별기획 2부작 특수 목적견들의 재난 상황 활약상 - 역대급 스케일!



<TV 동물농장>이 추석 연휴를 맞아, 그동안 시도한 적 없는 새로운 포맷으로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TV 동물농장>의 특별기획 <탐독>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온 '특수 목적견'들의 활약상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 생생하게 전달한다. 이를 위해 제작진은 까다로운 선발 과정을 거쳐 3마리의 특수견과 그들의 핸들러(훈련사)로 구성된 'team 탐독'을 결성했다.

경기북부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경찰견이자 국내 유일 방화 탐지견 폴리, 대한민국 공군 교육사령부 군견훈련중대를 대표하는 엘리트 군견 비오, 그리고 <TV 동물농장> 역사상 최강의 수색 능력으로 큰 화제를 모았던 인명구조견 제스퍼가 그 주인공들이다.

실종자 수색, 인화성 물질 탐지, 범인 제압 등 각 분야에서 최고의 능력을 인정받아온 이들은 범죄 현장을 리얼하게 구현해 낸 초대형 재난 상황에 투입돼 총 여섯 단계의 미션을 해결해 나간다. 화재나 폭발 등 실감 나는 특수효과와 보조출연자들의 리얼한 연기가 더해

져, 마치 실제 사건 현장 같은 몰입감을 선사했다.

교도소 폭발 테러를 음모하는 테러범과 한 공간에서 서로 쫓고 쫓기며 다양한 돌발 상황들을 헤쳐 나가야 하는 본 미션은, 실제 사건 및 재난 현장에서 특수 목적견들이 맞닥뜨리는 상황들을 그대로 재현해낸 것이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특수한 능력을 가진 TOPDOG들이 재난 상황에서 어떤 능력을 발휘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왔는지, 그 생생한 활약상을 만나볼 수 있다.

경찰청 방화 탐지견 폴리의 핸들러 최영진 경위는 “이번 <TV 동물농장> 특별기획 <탐독>을 통해 특수 목적견들에 대한 보다 많은 국민적 관심과 지원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역대급 스케일과 약 100일간의 제작 기간을 거쳐 완성된 <TV 동물농장>의 새로운 스토리텔링! <탐독 - 죽음의 교도소>는 오는 9월 4일(일)과 9월 11일(일) 오전 9시 30분에 만날 수 있다.



'제작'과 '사업'이 함께 명명된 유일한 부서

- 시사교양본부 동물농장제작사업팀

동물농장제작사업팀. 사내에서 유일하게 제작과 사업이 함께 명명된 부서다. 이름에서 유추해 볼 수 있듯이 <TV 동물농장>과 함께 유튜브 '애니멀봐'와 같은 콘텐츠 제작팀과 '어바웃펫'과 각종 IP사업을 추진하는 사업팀이 어우러진 부서다. 이른바 OSMU(One Source Multi Use)를 실행하고 있는 부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런 새로운 시도가 가능한 것은 단연코 <TV 동물농장>이라는 콘텐츠의 파워 때문이다.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인 2001년 5월, 동물 전문 프로그램을 표방한 <TV 동물농장>이 첫 방송됐다. 그동안 원조 동물 프로그램인 <TV 동물농장>에 MBC <와우 동물천하>, KBS <주주클럽> 등 타 방송사들의 아류 프로그램들이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결국엔 <TV 동물농장>의 아성을 깨뜨리지 못하고 사라졌다. <TV 동물농장>이 20년 넘게 장수한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더 대단한 일은 바로 여러 도전과 변화 속에서도 동종 프로그램 1등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왔다는 것이다.

<TV 동물농장>이 1등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은 변화와 혁신을 통한 진화,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맨 파워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친숙하고 귀여운 애완동물(*2001년 당시에는 '반려'동물이라는 단어가 없었음. '반려'동물이라는 단어는 2007년부터 공식적으로 사용)을 처음으로 프로그램화한 것이 시작이었다면, 이후 제작진은 다른 동물 프로그램과 달리 시청자들이 동물 시트콤을 보듯 웃고, 때론 마음 아파서 눈시울을 적시는 등의 차별화된 스토리텔링을 접목시키면서 변화 발전했다.

세월이 흘러 이젠 반려인구 천만 시대가 됐고 향후 반려산업 시장 규모가 6조 원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TV 동물농장>은 이렇게 변화되는 환경에 맞춰 다음 단계로의 진화를 선구적으로 준비해 오고 있다. 바로 OSMU(One Source Multi Use)의 구체적 실행이 그것이다. TV 콘텐츠인 <TV 동물농장>을 바탕으로 유튜브 '애니멀봐'(구독자 466만 명), 'Kritter Klub'(구독자 513만 명)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로 확장했고, 나아가 펫 시장에서 브랜



드 가치 1위로 평가받고 있는 <TV 동물농장> 브랜드로 오산시와 함께 '오산 동물농장테마파크'를 개장, GS리테일과 함께 '어바웃펫'이라는 반려용품 플랫폼 사업 진출 등 다양한 IP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TV 동물농장>이 21년 전 동물 전문 프로그램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면, '동물농장 제작사업팀'은 이제 콘텐츠 비즈니스(Business based Contents)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파워FM 7년 연속 청취율 1위, <김영철의 파워FM> 2049 1위



로 따돌리고 1위를 지켰다. 청취파급 효과와 시장 구매력이 가장 큰 20-49세 청취층을 기준으로 하면 34.5%를 기록, 2위인 MBC FM4U 17.5%와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프로그램 중에서는 <김영철의 파워FM>, <봄봄파워>, <두시탈출 컬투쇼>가 2049 청취율 1위~3위를 휩쓰는 등 SBS 파워FM 프로그램 5개가 TOP 10 안에 들었다. 특히 <김영철의 파워FM>은 2016년 첫 방

SBS 파워FM(107.7MHz)이 2022년 3라운드 청취율 조사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2015년부터 7년 연속, 30라운드 연속 부동의 1위다.

한국 리서치가 진행한 2022년 3라운드 라디오 청취율 조사결과에 따르면, SBS 파워FM은 22.9%의 청취율로, 2위 tbs 교통방송(15.0%), 3위 KBS 제2FM(13.8%)을 큰 격차

송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더니 작년부터 SBS 최고의 청취율 프로그램으로 등극했고, 이번 조사에서 자체 최고 청취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라디오 청취율 조사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13-69세 라디오 청취자 3,000명을 대상으로 7월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진행되었다.

<당신이 혹하는 사이 3> '청주유골' 5·18언론상



<당신이 혹하는 사이 3> '청주유골 430구의 진실' (연출: 이한기, 작가: 권소현)이 제12회 5·18언론상 영상 부문을 수상했다. '청주유골 430구의 진실'은 청주에서 발견된 다수의 유골이 5·18 당시 광주에 침투했다가 사살된 북한특수부대원들의 것이라는 주장을 파헤쳤다. 심사위원들은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주장을 이어가는 지만원 씨를 인터뷰해 그의 비과학적이고 나약한 실체를 시청자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했다"고 평가했다. 5·18기념재단과 광주전남기자협회가 주는 상으로 시상식은 8월 26일 5·18기념재단에서 열렸다.

사우기고



“빛의 매력에 빠져 조명감독 꿈꿨다”

- SBS A&T 아트3팀 신소현

이 세상은 빛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의 질감에 따라 세상은 참 다양하게 보입니다. 햇빛, 나무의 그림자, 밤거리엔 놓인 가로등, 그리고 하늘에 피어난 무지개까지. 세상을 바라볼 때 빛을 중심으로 바라보다 보면 세상이 새롭게 보이곤 합니다. 저는 그 빛이 참 좋습니다.

공연 연출에 꿈이 있어 들어간 연극영화학과에서 다른 파트에서 하는 일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조명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조명의 매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무대, 같은 배우라도 어떤 빛을 어떻게 비추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이미지로 보입니다. 하나의 피사체를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해 주는 빛의 매력에 빠져 들었습니다.

졸업 후 프리랜서로 공연예술에 종사하면서 본격적으로 방송 조명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방송사들은 조명을 기술 파트로 분류하기 때문에 제게는 벽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SBS는 방송 조명을 기술에 기초한 하나의 예술로 봅니다. 조명이 아트팀에 속해있는 것을 보고 용기를 냈습니다. 저의 열정과 의지를 믿어 주신 덕에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저를 뽑아주신 선택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SBS 창사 이래 처음 들어온 여성 조명 감독이라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제가 조명 일을 한다고 하면 다들 걱정을 합니다. 무거운 장비를 다루는 등, 체력을 요하는 작업이 많다는 인식 때문에 여성이 하기 힘든 업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미지 때문인지 조명 감독 지원자도 여성이 현저히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좋은 선례가 되고 싶습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여성도 할 수 있는 일이며, 직무에 대한 열정만 있다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를 통하여 조명에 대한 시각과 인식이 바뀌고, 조명감독을 꿈꾸는 이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입사한 지 이제 두 달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새롭고 즐겁습니다. 입사 전 했던 걱정이 기우일 정도로 선배님들이 챙겨주시고 잘 가르쳐주십니다. 아직은 여러 모로 부족하지만 하나하나 천천히 배워가며 조명감독으로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이라는 틀에 갇혀 가능성에 한계 두지 않겠다”

- SBS A&T 영상제작2팀 서정아

안녕하세요. 2022년 7월 1일, SBS A&T 영상제작2팀에 입사한 신입사원 서정아입니다.

최종 합격 문자를 받은 날의 기분을 생각하면 아직도 심장이 요동칩니다. 오랫동안 간절히 바랐던 일이었고, 쉽지 않았던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때의 감정과 지금의 열정으로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촬영감독으로 성장하겠습니다. 글을 쓰면서 합격 발표를 듣기까지 거처 온 많은 관문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또렷하게 기억납니다. 그만큼



긴장되고 간절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했고, 감사하게도 촬영감독이 되는 출발선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SBS A&T 영상제작2팀 최초의 여성 촬영감독입니다. 여성이 없었던 곳에 여성이라는 제 성별은 튀어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영상제작2팀은 야외 촬영과 도제식 시스템으로 힘든 곳이라는 인식이 만연하기에 외부에서는 여성인 제가 합격했다는 사실을 신기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선배님들과 동기들에게 여성으로 특별히 언급되지 않아 무덤덤할 뿐입니다.

‘처음’이라는 영광을 기쁜 마음으로 안고 가되, ‘여성’이라는 틀에 갇혀 제 가능성에 한계를 두고 싶지 않습니다. 합격 후 팀장님께서 “여자를 뽑아야 해서 너를 뽑은 게 아니다. 합격 기준에 맞는 사람을 뽑다 보니 네가 들어온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별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는 그 믿음과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좋은 촬영감독으로 성장하겠습니다.

팀장님과 선배님들께서는 신입사원들의 교육을 위해 오픈 워크숍 형태의 체계적인 교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아는 것을 공유하고, 선배님들께서는 관련된 지식을 명확하게 인지시켜 주시는 동시에 그 지식을 확장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저희 셋의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넘치는 열정에 저희는 선배님들의 그림자를 부지런히 따라가겠습니다.

열심히 배우며 노력하고 성장하여 촬영감독으로서 당당히 현장에서 빛을 기대합니다!